

지역 매아리

부안군, 군민만족도 조사 실시

부안군은 2018년 하반기 군민만족도 조사를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안군 정책에 대한 군민의 관심도와 만족도 환류를 통해 현재 행정서비스 수준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에 위탁해 실시할 예정이다. 19세 이상 군민 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직접 ARS 조사 방식으로 이뤄지며 귀농정책, 교육복지 등 정책 만족도와 대중교통, 문화체육, 상하수도, 도로정비 등 생활환경 만족도로 나눠 진행된다.

부안군은 군민만족도가 낮은 분야에 대해 실·과·소별 협업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 주민이 살기 좋은 생동하는 부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분석해 군민이 원하는 시책 발굴 및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역발전과 생동하는 부안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농업인 실용교육 실시

부안군 농업기술센터는 새로운 영농기술 보급과 농업인들의 새해영농 계획수립을 위하여 8일부터 18일까지 총 15회 100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교육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영농기술과 핵심 신기술, 농업경영·유통 등 현장 실용기술을 중심으로 영농기술반과 농촌지원반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시기에 앞서 우리모두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약 안전사용 지침을 준수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결의하며 교육을 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시작되는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의 이해와 강화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대한 중점교육과 FTA를 대응한 창조농업 지원과 쌀 수급 현안 과제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농업의 위기를 돌파하여 감소농으로서 공감대 형성과 새로운 각오로 새해 영농설계를 계획하도록 추진할 목표이다.

특히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실시되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 올해에도 집중농사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을 당부했고 2023년도 부안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잡버리 대회에 맞추어 명품 농산물을 만들어 세계인에게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초석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한국관광100선'에 선정된 정읍 대표관광지 내장산.

'아름답고 깨끗한 내장산서 힐링하세요'

정읍 대표관광지 '내장산'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 선정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지역의 대표관광지인 내장산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9-2020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한국관광100선'은 2013년부터 2년에 한 번씩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우수관광지 100개소를 선정해 국내외에 홍보하는 사업이며, 정읍 내장산은 한국관광 100선에 3회 선정된 것으로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생태관광지로 손꼽힌다.

'한국관광 100선' 선정은 까다로운 편이다. 직전에 선정된 '한국관광 100선' 평가, 지자체 추천,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예비후보 2배수 발굴로 시

작한다. 이어서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하는 1차 서면평가(정성·정량), 2차 현장평가, 3차 최종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로운 '한국관광 100선'이 결정된다.

정성평가는 학계, 여행업계, 여행기자·작가, 여행 동호회(커뮤니티) 회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13인이 참여해 진행하며, 정량평가는 이동통신사, 길도우미(내비게이션), 누리소통망(SNS) 거대자료를 활용해 진행한다.

'2019-2020 한국관광 100선'에 대한 혜택은 내 나라 여행박람회 참여와 대국민 홍보여행(팝투어) 기회 등이 제공되며, '한국관광 100선' 지도와 기념품은 전국 관광안내소에 배포됨은 물론, 국문

관광정보 제공 누리집인 대한민국 구석구석(korean.visitkorea.or.kr)에서는 한국관광 100선 선정지에 대한 상세내용을 제공하며, 이는 영어, 일어, 중국어(간체, 번체) 등 외국어도도 번역되어 '한국관광 100선'을 전 세계에 우리나라 우수 관광지로 소개된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2019-20 정읍방문의해와 맞물려 선정된 한국관광100선을 계기로 전국 제일의 단종을 가진 '내장산' 알리기에 힘쓸 것이며, 내장산 뿐 아니라 정읍의 훌륭한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해 경쟁력 있는 체험여행 1번지로 힐링관광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의회, 희망찬 새해 다짐하는 시무식 가져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3일 본회의장에서 조규철 의장, 유기상 군수, 군의원, 사무과 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찬 새해를 다짐하는 2019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무식은 조규철 의장의 신년사, 유기상 군수의 덕담, 케이크 커팅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조규철 의장은 신년사에서 "무술

년 한 해 동안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6만여 군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면서, "기해년 새해에도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고창군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창군의회는 오는 14일 제261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2019년 의사일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2019년 고창군의회 시무식

군민 모두 새해복합기반의세워

지역 가축전염병 확산 예방 '총력'

고창군, 공중방역수의사 위촉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가축방역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동물보호 등을 위해 '2019년도 공중방역수의사(이하 공수의) 위촉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선정된 공수의는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 및 가축방역활동에 적극 참여한 관내 동물병원 개설수의사 6명으로 김광덕(보양동물병원)원장을 비롯해, 조근태(인우동물병원), 홍순필(고창동물병원), 강경원(흥덕동물병원), 박영무(대산동물병원), 김요현(한사랑동물병원)원장이다.

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는 향후 1년간 읍면 분담지역의 가축사육 농가

수시 예찰하게 된다.

또 고창군 관내 모든 축산농가에 대해 예방약품 공급, 구제역·AID 등 가축 전염병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조치, 영세농가와 유해동물 포획·퇴치용 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지원, 구제역 예방접종 및 브루셀라 채혈 등 가축 질병 조기검색과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의 진료·예찰 검진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공수의 위촉을 통해 가축방역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축산농가 스스로도 방역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문화공간확충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 기대

정읍시,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선정... 사업비 5억원 확보

정읍시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추가 공모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5억원(국비 3.5, 시비 1.5)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 분야 중 마을만들기사업이다. 마을만들기사업은 주민이 주도하여 계획하고, 추진하는 상향식 사업으로 이번에 선정된 북면 평촌마을은 2017년부터 마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모사업을 준비했다. 관련해 맞춤형 역량교육과 마을테마발굴, 선진지 견학, 현장포럼(6회)등을 거쳐, 예비계획서를 수립 지난 11월 전북도 1차 평가와 12월 농림식품부(2차) 평가를 거쳐 마을만들기 신규 추가 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이번에 선정된 북면 평촌마을은 앞으로 2년간(2019~2020년) 총사업비 5

억원이 투입되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마을공동체 기능을 강화하고, 문화공간 확충과 안심안길정비, 마을부선방송시스템 구축, 에너지저장시스템을 위해 주민이용 공동시설에 10kw태양광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읍시는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공모에 내장산동소제지정비사업 등 25개소가 선정되어 총사업비 8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농촌정주기반조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복합공간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로경관 조성 및 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공모에 적극 대응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접수 신청하세요"

정읍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서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2019년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은 4개 분야 27개 사업이며 11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도행정 분야는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사업 등 11개 사업, 인력개발 분야는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지원 등 5개 사업, 생활지원 분야는 혼밥족 겨냥 시가기 간편 건나물 상품화 시범 등 7개 사업, 농기계지원 분야는 여성·노약자 농업인 운반차 지원 등 4개 사업이다. 사업 신청기한은 이달 28일까지로

유·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농업인상담소 및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www.jongseup.go.kr/agri)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 후 관련 서류와 함께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또한 사업신청서에는 반드시 농업인 상담소장의 추천이 필요하다.

시범 사업 대상자는 관내 거주 농업인으로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이 없고, 사업 예정부지 및 건물이 담보 설정되지 않아야 하며 5년 이내에 지방보조금 부당 수령 등으로 인하여 보조금결정이 취소된 적이 없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 추진계획서를 참고하여 사업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gift sets, and a cartoon bear mascot. Text include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lists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